

서울아산병원

VOL.728 2024. 7. 1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가 6월 27일부터 이틀간 아이디어 스페이스 전시회를 개최했다. 아이디어 스페이스는 고객 경험 개선을 위한 창의적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아이디어 제안-실행을 독려하는 '제안제도'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는 '아이디어 팩토리' ▲고객 경험 개선 아이디어를 함께 실행하는 '아이디어 AMC'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올해 상반기 우수제안 내용과 아이디어 팩토리 프로토타입 등이 소개됐다. 사진은 전시 작품을 살펴보고 있는 직원들 모습.

지나호 정답



제726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침상에서의 마지막 목욕'이었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외래간호팀 이성아 주임이 추천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4년 7월 15일(월)
발표 제730호(2024년 8월 1일 발간)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 _____ 소속 : _____
전화번호 :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독자를 위한 선물

당첨자 명단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용미연(중환자간호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김은숙(외래간호팀)
오보람(간호교육행정팀)
이지운(응급간호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김보경(중앙공급팀)
최민경(심장검사팀)

캔버스 북커버
윤경아(진단검사의학팀)
이다연(어린이병원간호팀)
이인범(내과간호2팀)
최영(수술간호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강주미(수술간호팀)
이선영(중환자간호팀)
이은주(외과간호1팀)
정선영(어린이병원간호팀)
최재희(외과간호2팀)



아이들 꿈과 건강 지키는 어린이병원 15주년

어린이병원이 15주년을 맞았다. 어린이병원은 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문을 열었다. 우리 병원은 소아 환자를 위한 진료실, 입원실,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국내 최대 규모로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병원은 지난 15년간 소아암, 선천성심장병 등 중증 질환 소아 환자 약 6만 명을 수술하고, 약 45만 명의 소아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등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어린이병원간호팀 허민영 유닛 매니저, 소아청소년과 전민교 조교수, 한지호 임상강사, 김혜주 주임, 서민정 대리, 여성영 사원이 6월 21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2면)

어린이병원이 15주년을 맞았다. 어린이병원은 환자들을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03 NEWS 혈관육종암 특성 재현한 오가노이드 개발

08 AMC IN(人)sight 거창한 결심 대신 매일의 노력으로

10 이야기가 있는 산책 자전거의 시작과 역사

12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발레리나 환자의 미소



서울아산병원 뉴스로 병원 소식을 한눈에

15년간 중증 환아 6만 명 수술, 응급 환아 45만 명 치료

“미래 세대인 아이들 건강 위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소아청소년전문의과 장원경 교수(왼쪽)가 소아중환자실에서 소아 페이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어린이병원의 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 질환 등 중증 질환 소아 환자 약 6만 명을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간세포종과 같은 소아암, 소아 간이식, 선천성 횡격막 탈장 등 소아외과 수술이 1만 9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장 이식, 복잡한 선천성 심장 기능 장애 등 소아심장외과 수술과 선천성 팔다리 기형이나 중증 외상성 골절 등 소아정형외과 수술은 각각 1만여 건이었다. 수신증·방광요관역류 등 소아비뇨의학과 수술은 7천여 건, 소아 백내장·녹내장 등 소아안과 수술은 5천 7백여 건, 뇌종양·두개안면기형·모야모야병 등 소아신경외과 수술은 3천 6백여 건을 시행했다.

또한 어린이병원은 지난해 3만 8천여 명, 누적 45만여 명의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했다. 어린이병원은 소아 응급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성인 응급실과 분리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만들고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진료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소아 응급 환자 치료가 중단된 적이 없다.

어린이병원은 중증 질환 환아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 및 관리

를 위해 29개 병상의 소아중환자실과 62개 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병원 개원 당시 국내 최대 소아중환자실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면서 현재도 국내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 3천여 명의 환자가 소아 및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2021년에는 임신 24주 6일 만에 국내에서 가장 작은 몸무게인 288g으로 태어난 초극소저체중미숙아가 153일 간의 밤낮 없는 신생아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받고 기적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는 등 국내 소아, 신생아 중환자 치료 분야를 발전시켜왔다.

고태성 어린이병원장은 “어린이병원은 소아암 및 난치성 혈액 질환 환아를 치료하는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국내 5건 중 1건을 시행하고, 태아치료센터를 통해 선천성 질환을 진단해 치료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중증 질환 환아들을 치료해왔다. 지속적인 치료와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하기 위해 중증소아재택의료팀, 소아청소년완화의료팀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혈관육종암 특성 재현한 오가노이드 개발



정기석 부교수 정다정 박사 최종우 교수

우리 병원 연구진이 혈관육종암에서 유래한 오가노이드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냈다. 환자의 암조직을 채취해 형성한 암조직 유사체인 오가노이드는 최근 맞춤형 항암제 및 진단마커 개발의 주요 토대가 되고 있다. 그동안 환자 유래 암 오가노이드는 다양한 암 조직에서 형성이 확인됐지만, 육종암 유래 오가노이드 배양법은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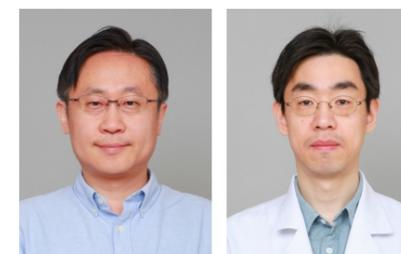
의공학연구소 정기석 부교수·정다정 박사, 성형외과 최종우 교수·정우식 부교수·김영철 조교수팀은 혈관육종암이 혈관 내피 세포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기존 오가노이드 연구에서 많이 사

용되는 매트릭겔(matrigel, 세포 외 기질 성분의 복합체) 내에서 형성하는 방법으로는 신생 혈관 발아로 인해 3차원 오가노이드 배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연구팀은 코팅을 하지 않은 배양 접시에서 혈관육종암 세포를 2차원으로 배양한 결과, 세포 증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세포 밀도가 높은 곳에서 혈관육종암 세포가 자가조립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형성된 세포 응집체는 3차원의 세포 덩어리로, 부착된 바닥에서 떨어져 나와 배양액 내에 부유하며 3차원의 혈관육종암 유래 오가노이드를 형성했다. 이러한 오가노이드는 환자의 분자 및 형태학적 양상을 모사하며 세포 외 기질 내에서 혈관 발아 현상을 보였다. 또한 현재까지 혈관육종암에서는 특정 바이오마커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단백질 C 수용체(PROCR)가 암조직 및 오가노이드에서 과발현되는 모습이 관찰돼 혈관육종암 바이오파마코믹스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과제 및 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저명 학술지「혈액 및 종양학 저널」에 최근 게재됐다.

전이암 촉진 단백질 첫 규명



김현식 교수 성창욱 교수

미생물학교실 김현식 교수와 병리과 성창욱 교수팀이 최근 암 전이 과정에서 자연살해(NK) 세포의 특정 단백질인 HPK1이 과

발현하면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소실돼 암 전이가 촉진되는 것을 최초로 규명했다. 암 전이를 예방하려면 면역체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연살해세포가 핵심 역할을 한다.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소실되면 암 전이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그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자연살해세포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 표적을 발굴하던 중, 암 전이가 일어날 때 혈액 및 전이 장소의 자연살해세포 기능이 소실되고 HPK1이 과발현 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역으로 검증하기 위해 자연살해세포가 HPK1을 과발현하도록 실험 쥐의 형질을 전환하고 흑색종 암세포를 정맥에 주사해 HPK1 발현 정도에 따른 암세포의 폐전이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HPK1이 과발현되면 폐뿐 아니라 다양한 장기로의 암 전이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PK1은 원발암보다 전이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HPK1이 결핍되면 자연살해세포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암 전이가 효과적으로 억제될 뿐만 아니라 면역관문억제제의 치료효과도 더욱 증가해 HPK1 조절이 실제 전이암 치료에 유망한 표적임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저명 학술지「어드밴스드 사이언스」에 최근 게재됐다.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6월 20일 열린 아산사회복지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 6월 20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복지와 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3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2명 중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를 진행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고 있다. 고성장과 인구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 이제는 변화된 인구구조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

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고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와 기업,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복지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이 오늘 심포지엄에서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을,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승현 서울

대학교 보건학과 교수는 '대도시 1인 가구와 지역공동체 사례 탐색'을 주제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각 지역공동체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욱 한국국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올해로 창립 47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인공지능·재생의료로 화생방 대응 연구



문경준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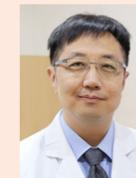
신동명 교수

우리 병원이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육군사관학교 과학기술연구 사업단과 컨소시엄을 이뤄 최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STEAM 연구사업의 신규 과제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세포치료센터

문경준 부교수, 세포유전공학교실 신동명 교수가 이번 연구에 참여하며, 4년 9개월간 총 46억여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 기반 미래 화생방 재난 탐지기술과 재생의료기술을 통합한 신속 대응 융합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팀은 새로운 화생방 물질 노출에 따른 인체 조직 손상 정도와 노출 경로별 생체 변화 특성을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화생방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기 진단과 응급치료, 세포치료제 개발을 통해 노출 후유증을 줄이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정

정기욱 교수 아시아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부사무총장



소화기내과 정기욱 교수가 6월 15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ANMA) 이사회에서 부사무총장에 선출됐다. 2008년 설립된 이 학회는 아시아 내 기능성위장관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화된 진료를 함께 연구하고 공유하는 국제 학회다. 정 교수는 2020년부터 부사무총장 직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이사회에서 연임됐다. 임기는 2026년까지 3년 간이다.

박효정 조교수 로레알-유네스코 펠로십상



영상의학과 박효정 조교수가 6월 14일 열린 제23회 한국 로레알-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시상식에서 펠로십상을 받았다. 이 상은 45세 미만 신진 여성과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박 조교수는 조기간암 선별검사법으로서의 축약형 MRI 검사의 가능성을 제시해 기존의 간암 선별검사법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간암 발견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박진선 임상전임강사, 박수영 임상강사 학회서 수상



심장내과 박진선 임상전임강사와 박수영 임상강사가 6월 21일부터 이틀간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부정맥학회 정기 국제학술대회에서 수상했다. 박진선 임상전임강사는 심실조기수축의 예후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 펠로십 초록상을, 박수영 임상강사는 심방세동 환자의 우심실 기능과 관련된 연구로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한신에 레지던트 최우수초록상



핵의학과 한신에 레지던트가 6월 8일부터 4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미국핵의학분자유상학회 학술대회(SNMMI 2024)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받았다. 한 레지던트는 '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 환자에서 풍선폐혈관성형술에 대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한 폐관류 단일광자단층/전산화단층 영상의 반정량 분석'을 주제로 발표해 이 상을 받았다.

호흡기내과 연수강좌



호흡기내과 조경욱 부교수가 연수강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제26회 호흡기내과 연수강좌가 6월 22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결핵과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강좌에는 의료진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강좌에서는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역학, 발병기전과 영상소견 ▲비결핵항산균 폐질환의 치료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비결핵항산균 검사 ▲다제내성결핵 및 약제감수성검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달의 후원자

개인및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박재순	50,000,000원	(주)웰메이드개발	100,000,000원
손해곤	3,000,000원	(주)케이에스엠	100,000,000원
이우용	100,000,000원	한일홀딩스(주)	100,000,000원

불우환자 지원

김성호	3,000,000원	최슬기	1,000,000원
김준호	500,000원	하헌식	2,000,000원
유승진내과	3,000,000원	한국셀마스타(주)	100,000,000원
장현중	1,000,000원		

직원및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김민현	3,000,000원	박은정	2,000,000원
박유미	100,000원	이인섭	1,000,000원

- 2024년 6월 14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 대외협력팀 후원유닛 (원내 6207)

간세포암의 수술 전 화학색전술 효과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상훈 조교수

간이식·간담도외과 김상훈 조교수는 최근 간담췌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절제 가능한 단일 간세포 암종에 대한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 단일 센터 코호트 연구'라는 주제로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 결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간세포암 환자의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의 효과를 단일 종양 크기에 따라 규명해 수술 전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 계획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단일 종양 간세포암의 경우 가이드 라인에서는 완치를 위해 가급적 빠른 수술적 절제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TACE)을 통해 종양의 크기와 종양 표지자 수치를 줄여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간세포암 환자의 수술 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어 종양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 간세포암 가이드라인은 근거가 부족해 아직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 연구를 통해 대규모 코호트에서 단일 간세포암의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의 장기 결과를 제시하고 근거에 기반한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의 임상 결과를 제공하고자 했다.

존율을 종양 크기별로 나눠 성향 점수 매칭(PSM)을 시행해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3~5cm 종양은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그룹이 무재발 생존율과 전체 생존율 모두 유의하게 개선됐다. 3cm 이하와 5~8cm 종양은 무재발 생존율만 개선됐으며, 8cm 이상 종양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은 수술 후 무재발 생존율을 개선하는 유리한 예측 인자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이 병리학적 검사에서 종양 미세혈관 침범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종양 재발을 억제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은 수술 후 장기 생존에 긍정적이며 특히 3~5cm 종양에서는 재발 억제 및 전체 생존율을 모두 향상시키므로 적극적으로 권장될 수 있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이 연구는 절제 가능한 단일 간세포암 환자에서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의 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간 절제술을 받은 환자 4,89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수술 전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그룹 378명과 수술만 받은 그룹 4,521명으로 구분했다. 그룹별로 수술 후 간암 무재발 생존율과 전체 생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우리 병원은 간세포암의 수술적 절제와 간이식 후의 대규모 데이터를 체계화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인자와 다양한 모델을 통해 재발률 감소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한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간이식·간담도외과팀의 방대한 수술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체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보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산 개발로 효율 높아진 임상시험센터 주사실

임상시험센터, IT전략팀, IT서비스팀

임상시험센터 주사실에서 근무하는 연구코디네이터는 일정 예약 요청 이메일을 확인하고, 메신저로 내용을 전달하며, 서류에 데이터를 기록하고, 환자 이력 확인을 위해 서류를 뒤져본다. 업무가 전산화돼 있지 않아 의료진의 업무 속도가 느릴지 수밖에 없었다. '임상시험센터 주사실만의 전산 시스템을 만들 순 없을까?'



AMIS 3.0의 '임상시험센터 주사실 예약관리' 화면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왼쪽부터) IT서비스팀 이상욱 과장, IT전략팀 김현정 과장, 박선영 차장, 임상시험센터 김엘리사벳 유닛 매니저, 박해정 연구코디네이터, 민수정 유닛 매니저.

서관 6층에 위치한 임상시험센터 주사실.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다. 연구코디네이터는 일정 관리, 데이터 기록, 약제 투여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지만, 다양한 과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모든 업무가 이메일과 서면, 메신저 등으로 각각 진행되어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치료 이력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업무 프로세스의 비효율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걱정이 커졌다. 자연스럽게 임상시험센터 주사실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졌다.

행위 기록을 전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임상연구의 질도 향상됐다.

"AMIS 3.0 전산화를 통해 행정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은 줄어들었고 환자를 대면해 살필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어요. 임상연구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임상시험센터 박해정 연구코디네이터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에 그린다

2021년 임상시험센터 주사실 업무 프로세스를 AMIS 3.0에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병원발전기금 과제로 선정됐다. 그리고 2022년 5월 임상시험센터, IT서비스팀과 IT전략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주사실의 업무 프로세스를 세밀하게 분석한 뒤 어떻게 전산으로 구현할지 논의했고, 외래 주사실에서 사용하던 전산 화면을 모티브로 삼아 화면을 만든 뒤 테스트와 수정을 반복했다. 8개월 동안 진행된 수많은 회의와 테스트 끝에 총 여섯 종류의 전산 화면이 제작됐고 2023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임상시험센터 주사실 근무자는 모든 업무를 AMIS 3.0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주사실 예약 현황을 전산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진료과에서는 별도의 서류나 이메일 작성 없이도 AMIS 3.0으로 환자 의뢰를 할 수 있게 됐다. 환자의 간호 및

파트너를 배려하는 마음

전산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임상연구의 특성상 외래 주사실이나 일반 병동에서 사용하는 화면과는 다르게 업무 및 화면 접근 권한 등을 설정하는 것이 까다로웠다. 개발자에게 익숙한 전산용어도 연구코디네이터에게는 외계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임상 현장과 전산 개발을 두루 경험한 IT전략팀 간호사들을 비롯해 최적의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모두의 노력 덕분에 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 나갈 수 있었다.

"제로 베이스에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프로젝트 규모도 큰 편이었고 내용도 어려웠죠. 하지만 돌아보니 여느 때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가 어려워하지 않도록 쉽게 설명하고 안내하려 노력하는 배려의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 IT전략팀 김현정 과장

※ 병원보에서는 '협업의 가치' 코너를 통해 다양한 직종, 부서 간 협업 사례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협업은 우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거창한 결심 대신 매일의 노력으로

○ 대장항문외과 김영일 조교수

하루에도 김영일 조교수를 찾는 전화가 수시로 울린다. 대장항문외과의 특성상 간담도췌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타과의 접점이 많아 정규 수술 스케줄 외에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술하는 일이 다반사다. 수술실에서 자주 손발을 맞추는 의료진은 김 조교수에 대해 항상 차분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수술하는 실력을 갖췄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만약 제 가족이 수술을 받는다면 김 교수님께 믿고 맡길 겁니다.” ○



책임을 완수하며 성장하는 순간들

대장항문외과는 복강 내에 위와 십이지장을 제외한 소장부터 대장, 직장, 항문까지 넓은 범위의 치료를 관장한다. 거의 모든 장기와 인접해 있는 대장이나 소장에는 종양이 침범할 확률도 높아 한 달에 50~60건의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해부학의 폭넓은 이해와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고 각종 진료과의 협업이 많은 분야다. “그때그때 대처해야 하는 긴장과 피로가 있긴 해도 저를 믿고 찾아주는 의료진과 소통하며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는 순간이 참 좋습니다. 똑같은 수술이라도 환자마다 컨디션이 달라 나태해질 틈도 없죠.”

의사가 된 이유를 묻자 “특별한 사명감이나 꿈이 있던 건 아니어서...”라며 잠시 머뭇거렸다. 문과 출신으로 법대에도 합격했지만 최종 선택은 의대로 향했다. “일단 입학만 해보자는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남들은 힘들다는 의대 공부가 잘 맞고 재미있더라고요. 게임이나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일찌감치 외과로 진로를 정하기도 했고요.” 대장항문외과 펠로우 면접 자리에서 교수진은 ‘환자에 대한 헌신’을 제1 덕목으로 강조했다. 이에 김 조교수는 낮에는 환자를 만나고 밤이면 논문을 쓰는 생활을 이어갔다. 1년간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제가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도 교수님들은 제 수술 기록지를 다 챙겨 보셨고, 더 이상 어떡할지 몰라 연락하면 새벽에도 답을 주셨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헌신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부담보다 더 큰 절박함

대장암, 직장암을 주로 수술하는 김 조교수의 치료 원칙은 간단하다. 교과서대로 한다는 것. “막내 스테프로 수술을 막 시작했을 때 환자들에게 미안함이 컸어요. 저를 만나 우리 병원의 수술 대가이신 분들께 수술받을 기회를 놓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원칙부터 철저히 해왔습니다.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환자의 나이와 특성에 맞춘 치료 결정과 보다 효과적인 진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종합병원에서 젊은 환자를 보냈다. 종양의 위치와 크기까지 확인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적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다 온 환자들은 장기가 이미 형용어지고 엉망인 경우가 많다. 겁도 나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김 조교수는 이곳이 마지막 병원이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수술실에 섰다. 역시나 수술은 복잡하고 오래 걸렸지만 치료 목표를 무사히 달성할 수 있었다. 퇴원하는 환자가 고마움에 눈물을 보이자, 김 조교수는 담담한 인사로 기쁨을 대신했다. “그럼 이제 외래에서 뵈겠습니다.”

환자 향한 응원의 마음으로

우리 병원을 찾는 3기 대장·직장암 환자들의 완치율은 약 80% 이상이다. 다른 암종에 비하면 좋은 성적이지만 김 조교수의 시선은 20%의 재발 환자들에게 향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제 잘못된 것처럼 안타깝고 힘들어요. 특히 젊은 환자라면요.” 그래서 더 적은 수의, 더 작은 구멍으로 가능한 로봇 수술에 꾸준히 도전하는 동시에 암을 효율적이고 쉽게 진단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재발 여부를 빨리 알 수 있거나 예측된 예후를 토대로 보다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아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저에겐 연구가 제일 어려운 숙제예요. 대장암 치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꼭 찾고 싶거든요. 곧 예정된 해외 장기 연수에서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가 오가는 진료실. 일순간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암이 재발한 사실을 알리자 환자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거듭 질문했다. 김 조교수는 암이 원래 그럴 뿐이라며 환자가 마음을 가라앉힐 때까지 기다렸다. “황망함에 쉽사리 진료실을 나서지 못하는 환자분이 많아요. 처음엔 ‘여기에 좀 더 있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환자의 고통을 다 알긴 어렵죠. 그런데 그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 위로이자 공감의 표현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응원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병원은 ‘AMC IN(人)sight’ 코너를 통해 진료·교육·연구 분야에서 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의료진을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 ①

자전거의 시작과 역사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누가 빠르지 경쟁하듯 내달렸던 자전거. 세상 어디든 단숨에 갈 것만 같은 기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뒷바퀴 옆 보조바퀴를 떼고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 주다가 어느 순간 손을 뗐을 때 두 바퀴만으로 균형을 잡으며 자전거를 타는 자녀를 보며 뿌듯함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지럼과 균형에 관심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의 입장에서 자전거 타기야말로 건강과 균형 잡힌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자전거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야외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죠. (커지는 자전거 수요에 가격도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번 호부터 세 가지 주제로 자전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전거의 시작과 역사'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리즈가 어린 시절 느꼈던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퀴, 페달, 그리고 체인

바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대 발명품에 들어갑니다. 거대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굴림대를 이용해 먼 곳에서 무거운 대리석을 옮겨 왔기 때문에 지어질 수 있었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바퀴를 이용한 마차는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왕조 시대에 짐을 나르는 수레 또는 귀족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퀴가 앞뒤로 연결돼 있는, 우리가 아는 모양의 자전거가 나타난 때는 언제일까요? 생각보다 오래 되진 않았습니. 프랑스 혁명 직후인 1790년, 프랑스의 귀족 콩뜨 드 시브락Comte de Sivrac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기계'라는 의미의 셀레리페르Célérieres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전거와는 달리 페달이 없었습니다. 달리기 위해선 두 발로 땅을 밀쳐야 했고 바퀴가 일직선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방향 전환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그림1] 1817년 카를 폰 드라이스가 개발한 드라이지네.

후 1817년 독일의 귀족 카를 폰 드라이스Karl von Drais는 앞바퀴의 방향 전환이 되는 '달리는 기계'란 뜻의 드라이지네Draisienne를 개발했습니다(그림1). 여전히 발로 땅을 밟고 밀쳐야 했지만 사실상 자전거의 원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됐으니 당연히 타이어도 자전거 바퀴에 먼저 사용됐겠죠? 1844년 미국의 발명가 찰스 굿이어Charles Goodyear가 천연고무와 황이 결합하면 탄성이 있고 안정적인 고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1888년 영국의 발명가 존 보이드 던롭John Boyd Dunlop이 바퀴가 철과 나무로만 되어 있어 울퉁불퉁한 도로 위를 달릴 때 심한 통증과 두통을 호소하던 아들을 위해 고무로 튜브 모양의 호스를 만든 뒤 공기를 주입해 지면으로부터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최초의 타이어를 발명했습니다. 이후 던롭은 회사를 설립해서 오늘날에도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타이어 회사가 되었죠. (참고로 자동차용 타이어는 프랑스의 미슐랭Michelin 형제가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페달을 열심히 돌려야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겠죠? 자전거에 최초로 페달을 달아 밟을 땅에 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는 1839년 스코틀랜드의 대장장이 커크패트릭 맥밀런Kirkpatrick Macmillan이 개발했습니다. 페달을 위아래로 밟는 직선 운동의 힘을 전달해 뒷바퀴가 회전 운동을 하도록 하는 원리였죠. 여기에 더해 1876년 영국의 해리 로슨Harry J. Lawson이 체인으로 뒷바퀴로 힘을 전달하는 자전거를 개발했습니다. 이때 개발된 자전거는 안전하다는 뜻에서 세이프티Safety 자전거로 불렸습니다(그림2).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전거와 관련한 굵직한 역사 대부분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국은 '자전거의 종주국'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림2] 1876년 해리 로슨이 개발한 세이프티 자전거. 페달과 체인을 통해 힘을 전달하는 최초의 자전거였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자전거가 들어왔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양의 선교사들에 의해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906년 4월 22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전거 대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당시 일본 선수들과 경쟁하며 민족정신을 크게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여러 차례 자전거 대회 우승을 차지한 엄복동 선수는 우리나라 1세대 비행사인 안창남과 더불어 '하늘에는 안창남, 땅에는 엄복동'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조선자전거연맹(지금의 대한사이클연맹)이 1945년 11월 발기인 대회를 거쳐 1946년 4월 발족했으며 1947년 국제사이클연맹(UCI)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세계 속의 자전거

세계적인 자전거 경기도 많습니다. UCI가 주관하는 경기 중에는 프랑스의 투르 드 프랑스Tour de France, 이탈리아의 지로 드 이탈리아Giro d'Italia, 그리고 스페인의 부엘타 아 에스파냐Vuelta a España 등이 유명합니다. 세계 각국의 프로 선수들이 모여 3주에 걸쳐 수천 km를 달리면서 구간별 우승, 전체 우승 등을 놓고 경쟁합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인 사이클의 세부 종목은 총 18개로, 2021년 도쿄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22개나 걸려 있었을 정도로 주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런던 올림픽 때 처음으로 사이클 종목에 출전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시상대에 우리나라 선수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아시안게임에는 1958년 도쿄 대회 때부터 참가했으며 금메달 3개, 은메달 30개, 그리고 동메달 39개 등 총 102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일본, 중국에 이어 아시아 3위의 기록입니다. 앞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갖추고 열심히 노력하는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이야기가 있는 산책' 코너는 필자의 전공 분야와 인접한 주제 또는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평소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살펴온 분야를 산책하듯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필자로 이비인후과 안중호 교수가 '슬기로운 자전거 생활'을 주제로 3편의 글을 연재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기 위해 걷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산책'처럼 이 코너를 통해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챙기길 바랍니다.

발레리나 환자의 미소



외래간호팀 이성아 주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방전절제와 재건수술을 받은 이정아(가명, 37세) 님은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위해 성형외과 외래를 찾았다. 항암으로 인해 짧아진 머리, 폭 눌러 쓴 모자, 그럼에도 소녀 같이 예쁜 얼굴을 한 그녀를 접수대에서 처음 만났다. 환자 확인을 위한 내 질문에 수줍게 대답하는 첫인상이 기억에 남았다. 그 이후에도 이정아 님을 외래에서 자주 만났다. 서로를 기억한다는 눈빛으로 간단한 인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나눈 적이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짧았던 이정아 님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이제 제법 길어진 머리카락이 모자 밑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모자를 벗고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난 이정아 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어머! 이정아 님, 이제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너무 예뻐요! 힘든 과정이 다 끝났네요. 이제 2년 뒤 외래에서 만나면 되겠어요. 축하드려요”라고 인사를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정아 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나 역시 눈물이 났다. 마음을 추스른 이정아 님은 “선생님, 사실 저는 발레를 전공했어요.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항암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는 바람에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건강을 회복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축하 말씀을 해주니까 큰 위안이 되네요. 항상 저를 기억하며 반겨주셔서 좋았고 2년 뒤에도 꼭 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음 깊숙이 전해지는 진심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다가 웃으면서 답했다. “2년 뒤에도 제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무용 잘 가르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몇 주 뒤, 내게 칭찬카드가 도착했다. ‘환자를 기억해주고 밝은 미소로 맞이주어서 그동안 많은 위로가 됐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진료를 받고 갈 수 있었다’는 내용이였다.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처음엔 수술장 간호사로 일했던 나는 환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성형외과 외래로 왔다. 하지만 매일 수십, 수백 명의 환자와 보호자를 만나는 바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가 많았다. 그러면서 소통을 위한 마음의 여유도 점점 사라져 갔다. 그런 내게 이정아 님은 외래 간호사의 역할이 ‘환자의 수술 이후의 삶을 함께 하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다. 완치까지의 힘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내 말과 태도가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가치 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는 환자 곁에서 간호사가 적어 내려간 희망과 극복의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과정에서



건강의학과 안명희 조교수



의료진은 질병의 치유를 목표로 하며 환자, 보호자들의 치유에 대한 바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중증도가 높은 부서에서는 죽음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죽음은 치료의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거나 자기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연령의 의료진은 생애 주기에서 청년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죽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직업인으로서 죽음을 빈번하게 접하게 됐지만 슬픔, 좌절,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쌓이더라도 감정을 억제하거나 둔감한 채 환자들과 거리를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감정 소진이나 무기력감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접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자신의 죽음 불안(death anxiety)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죽음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고통, 존엄 상실 등의 공포와 죽음으로 인한 통제 상실, 인격 소실, 애착 관계의 단절에 대한 공포 등을 떠올리게 합니다. 삶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일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부정(denial)의 방

어 기제를 사용하지만 의료진은 부정해도 결국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다뤄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적, 종교적으로 죽음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안도감을 갖기도 합니다. 같은 경험을 한 동료들과 일상에서 죽음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구원 환상(rescue fantasy)이 질병 치료에 비현실적인 기대나 믿음을 유발하여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자연스럽습니다. 구원 환상은 의료진이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의학 교육 과정에서 심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이타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자신의 이상적 자아가 과대포장되면서 누군가에 힘이 되고 싶은 정도를 넘어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될 때 구원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내면에 열등감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헌신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환자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 앞에서 자기 비난, 감정 소진,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원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과 아픔에 신경 쓰다가 정작 자신은 잘 돌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기대 설정과 함께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과 관련한 감정, 생각을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으로써 현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명희 조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2017년 건강의학과에 입사해 스트레스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지기’ 담당교수로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시니어학교 강동천호 주간보호센터 의료봉사

우리의 마지막 추억 쌓기



응급간호팀 이윤주 주임

작년에 이은 두 번째
 아산간호봉사단 활동이었다.
 주간보호센터에 출석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건강상담을 하는 봉사였다.
 특별히 만 5년간 응급실에서
 전우애를 다진 동기의
 퇴사를 앞두고 의미 있는
 나눔과 추억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센터에 들어서니 예상보다 많은 어르신이 계셨다. 본격적인 검사와 상담에 앞서 우리를 소개하며 어르신들께 다가갔다. 긴장도 됐지만 대부분의 어르신이 우리를 반기며 열정적으로 검사에 임해 주었다. 기대에 부응하듯 우리는 빠르고 정확한 협업으로 검사와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해맑게 마주 보며 마냥 좋아하던 할머니, 여기에 취직하라고 재촉하는 할아버지, 무뚝뚝한 표정으로 한 손은 치매 예방 활동인 '뽕뽕이'를 터뜨리며 한 손은 혈압을 재라고 내미는 할아버지, 더 있다 가라며 우리를 붙잡는 할아버지... 그 외에 모든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기억에 남았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더 있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센터의 다음 일정 때문에 일어나야 했다. 우리의 작은 선행이 아주 큰 선물이 되었다며 어르신들은 끝까지 두 손을 잡고 배웅해 주었다. 뿌듯한 마음에 더 많은 분께 꾸준히 베푸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퇴사를 앞둔 민지, 앞으로도 함께 응급실을 지켜나갈 예지,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준 아산간호봉사단과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왼쪽부터) 응급간호팀 이윤주교예자-권민지 주임이 봉사활동 중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굿바이 콩글리시

“선생님, 내일 듀티 뭐예요?” “내일 데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할까? “I have a day duty tomorrow”가 맞을까? 틀리다. 교대근무에서의 ‘듀티’는 shift라고 한다. ‘데이 근무’ ‘이브닝 근무’ ‘나이트 근무’를 말할 땐 shift를 써서 각각 day shift, evening shift, night shift라고 하자.

데이 근무

- ☹️ a day duty
- 😊 a day shift

Let's Talk

- A What's your shift tomorrow?
내일 듀티 뭐예요?
- B I have a day shift. What about you?
데이 근무예요. 선생님은요?
- A I have an evening shift.
이브닝이에요.

“그 환자 lab 어때요? lab 확인했어요?”와 같이 의료현장에서는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앞뒤를 자른 영어가 많이 쓰인다. 여기서 ‘lab’은 laboratory(실험실)의 약어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lab results’라고 하자.

그 환자 lab은 어때요?

- ☹️ What about the lab for that patient?
- 😊 What about the lab results for that patient?

Let's Talk

- A What about the lab results for that patient?
그 환자 lab은 어떻게 됐나요?
- B The results just came in this morning.
It appears to be acute appendicitis.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충수염인 것 같습니다.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됩니다.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합니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외래간호팀 이태신 대리

‘마음을 잇는 봉사활동 - 자연이 준 힐링과 배움’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데 숲을 가꾸는 활동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저도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전해림 과장

‘협업의 가치 - 이해와 배려로 만든 당일 진료 프로세스’ 코너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중증 환자들 중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돼 PET 검사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를 접할 때 안타까웠는데, 당뇨병센터를 통한 당일 진료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너무 기뻐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응급간호팀 권민지 주임

‘어느 간호사의 다이어리 - 침상에서의 마지막 목욕’ 코너를 잘 읽었습니다. 임종기 환자를 위해 머리를 감겨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린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장암 말기였던 외삼촌께 마지막 목욕을 시켜드렸던 제 경험이 함께 떠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라 선생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외과간호2팀 이유진 주임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 덕분에 업무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인 환자에게 1인실과 2인실을 영어로 안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자동 번역 어플을 이용해 겨우 응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회가 된다면 병실 유형에 대한 표현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장병원간호팀 이상란 선임기능

요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눈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원하는 혈관만 확장시키는 급성 혈관폐쇄의 광역학치료’를 주제로 한 연구노트 내용이 병원보에 실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유익한 연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NS 돌보기

[건강플러스] 관절이 보내는 경고, 무릎 통증



출연: 정형외과 이범식 교수

무릎이 아플 때 맞는 주사로 잘 알려진 ‘연골 주사’ ‘뼈주사’. 모두 같은 주사로 생각해 ‘뼈 주사나 연골주사 중 아무거나 놔주세요!’ 라고 말하기 쉽지만 이 주사들은 성분도, 치료 질환도 완전히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는 즉시 효과를 보이는 이 주사들, 아플 때마다 계속 맞아도 괜찮을까요? 약물별 특징과 주의점 등을 건강플러스 쇼츠에서 짧고 굵게 알려드립니다.



[암행의사] 4기여도 완치 가능한 소아 악성 림프종



출연: 소아청소년종양학과 김혜리 부교수

악성 림프종은 소아에서 백혈병, 뇌종양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성인 악성 림프종은 정보가 풍부하지만, 소아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 질환에 대해 오해를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4기여도 완치가 가능한 소아 악성 림프종에 대해 암행의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